

지역 소식통

고창군, 제51회 모양성제 10월 축제 준비 돌입

고창군이 24일 오전 김철태 고창부군수 주재로 '제51회 고창모양성제(10월9~12일)'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군민과 고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기 위한 축제 구성계획과 각종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이 논의됐다.

올 가을에 개막할 '제51회 모양성제'는 50년간의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세대와 문화가 어우러져서 고창에서 즐기는 활력 넘치는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음식 내외 체험 프로그램, 51년 역사의 모양성제 전통 위에 MZ세대의 감성을 엮은 테마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철태 고창군 부군수는 "고창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대와 문화가 모양성에서 어우러지고 찾오는 관광객에게 고창의 멋과 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실시

정읍시는 여름철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칠보 고현교와 산내 구정초교 등 5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8월 말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방서와 협력해 안전요원을 선발하고, 인명구조 요령, 안전 장비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물놀이 안전사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안전관리 요원 교육을 실시했다.

또 물놀이 시에는 급류 등 자연적인 위험 요소에 대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구명조끼를 지참하지 않은 물놀이객에게는 비치된 구명조끼를 제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구명환과 구명줄을 구비했으며, 읍·면·동 직원의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연락 체계를 유지해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활력 넘치는 어촌 만든다

고창군, 하전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선정 등 어업환경 개선

고창군이 하전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내 최대의 바지락 생산지로 알려진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의 주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올 1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에 심원면 하전권역(동전·사전·상전·용기마을)이 최종 선정돼 국·도비 등 사업비 100여원을 확보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어촌돌봄스튜디오와 주거스튜디오, 리폼스튜디오(폐류갑질 처리기) 설치, 마을골목인길 경관개선 등이 이뤄진다.

이외에도 동호항 어촌뉴딜 300사업과 구시포연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시포항 오션 뉴딜사업, 명사십리일원의 연안침식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안심해안사업 등이 본격 진행중이다.

또한, 고창군은 주민 관심이 높고 어장 환경에 맞는 고부가가치 품종을 선택하고, 방류 전 전염병 검사를 통해 자연환경에 적응력이 높고 건강한

종자 상태임을 확인하여 품종별 적기에 맞춰 방류를 실시한다.

앞서 고창군은 구시포·동호 등 고창 해역에 납치 31만 마리와 관내 하천에 폐기 32만 마리, 합계 11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시기에 따라 미꾸라지, 꽃게 등을 추가 방류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 수산종자의 지속적인 방류를 통해 자연 생태계를 회복하고, 어족자원의 증가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군은 어민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한 어업활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역 어업인들의 사고 예방과 안전한 어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도등을 설치했다. 유도등은 갯벌에서의 야간 어업 활동 시 고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시설물로 지난해 어촌계별 연안 8개소에 설치했고, 올해에도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연안 4개소에 추가설치를 마무리했다. 또한 어업인들의 노동력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했다. 동호항에 설치한 인양기는 태풍 등 기상악화 시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신속하게 육지로 인양이 가능하다.

고창군 심원면 하전마을에서 5월 10일~12일(사흘간) 열린 '2024년 하전바지락 오감체험 페스티벌(고창바지락 축제)'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하전갯벌에서 생산된 맛과 품질이 우수한 하전 바지락을 판매했으며 시중가 보다 30% 할인 판매해 준비한 바지락 7톤이 완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2024 고창갯벌축제(6월28~30일)'도 풍천장어 시식과 판매, 미꾸라지 풍천장어잡기, 더위야 가라 물총싸움, 해양치유 프로그램 등이 펼쳐져 큰 인기를 끌었다.

방준형 고창군 해양수산과장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을 통해 어촌생활환경 개선 및 어업기반시설을 구축하여 활력 넘치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밀 수매현장 방문 농업인 격려

부안군은 2024년산 국산 밀 수매를 7월 22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수매는 8월 23일까지 계속되며 부안군에서 생산된 국산 밀을 a1(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매입하게 된다. 품종은 새금강, 금강으로 매입목표량은 1,600톤이며 매입단가는 1등급 기준 포(40kg)당 1등급은 3만 9,000원, 2등급은 3만7,000원이다. 부안군에서는 150농가가 이번 수매에 참여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3일 국산 밀 수매 현장인 부안군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을 찾아 수매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상



이변으로 수확량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하였지만 농민들이 고생해서 수확한 밀이 좋은 등급을 받아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밀 생산농가의 고충이 많겠지만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달라"고 당부하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의회,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4일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민의 생존을 위한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7월 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kg에 18만 3,960원으로 지난 2023년 10월에 비해 15.4% 하락하는 등 가파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의 양곡 추가 매입을 통한 시장격리 조치와 장기적인 쌀 재배면적 감소, 쌀 적정 생산을 위한 다양



한 정책 등을 추진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태수 의원은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선 유지는 헛된 공염불이 되었다"며 "이제라도 농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쌀값 20만원선을 보장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여름엔 물이 좋다!... 정읍시, 물놀이 성지로 '인기'

정읍천 미로분수 · 칠보 물테마유원지 · 사바나 캠프 정읍... 핫한 물빛축제까지

폭엽과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읍이 새로운 물놀이 명소가 떠오르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정읍의 대표적인 물놀이 시설은 오랫동안 호남권 대표 명소로 사랑받아 온 칠보 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다. 최근에는 시가지를 가로지르는 정읍천과 어우러진 미로분수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바나 캠프'까지 문을 열어 더욱 다채로운 물놀이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여름과 짝을, 물과 합함을 잇는 축제까지 예정돼 있어 정읍을 찾는 발길이 부쩍 늘고 있다.

칠보 물놀이장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운영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무성서원 인근에 자리한 칠보 물놀이장은 물테마 전시관, 인공폭포, 생태공원 등을 갖추고 있다. 2,030㎡ 면적의 어린이놀이터와 유아놀장, 워터 터널, 워터스프레이, 바디슬라이드 등 다양한 놀이시설과 함께 그늘막, 낚시 탈의실, 이동식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완비되어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정읍천 미로분수는 이화수 시장의



공약사업인 정읍천 관광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사바나 캠프 정읍은 최근 문을 연 민간 시설로, 허브원(정읍시 구량 1길 188-3) 내에 위치해 있다. 72개의 텐트와 어린이 수영장, 원형 수영장, 에어 바운스 2개,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텐트 대여 시 놀이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 최대 500명이 찾고 있다. 깔끔한 시설과 쾌적한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이용자들이 인기다. /정읍=김대환 기자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정읍시,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23일 정읍천과 정읍역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정읍천 야간경관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사업은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보고서 상동고까지의 교량에 대한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정읍역과 정읍천에 다양한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정읍천 주변 도시경관에 정읍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빛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야간경관 기본계획 △경관조명 공간 연출 △교량별 야간경관 테마 선정

정읍시,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23일 정읍천과 정읍역에 야간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정읍천 야간경관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천 야간경관 조성사업 사업은 정읍천과 정읍역을 연계해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연구보고서 상동고까지의 교량에 대한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고, 정읍역과 정읍천에 다양한 야간경관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보고회에서는 정읍천 주변 도시경관에 정읍의 정체성을 반영한 상징적인 빛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권역별 야간경관 기본계획 △경관조명 공간 연출 △교량별 야간경관 테마 선정

△벚꽃로 경관조명 개선안 등이 논의됐다.

또한, 정읍천 수변과 정읍역 광장 공간에 조명을 활용한 야간 볼거리와 정읍천 야간 자연경관의 조망 명소 발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사업은 올해 9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야간경관을 통해 정읍천에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마련해 관광객 유입과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